



#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행복해요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루가 1, 45)



마리아는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았어요. 아주 먼 곳에 살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어요.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아주 기뻐했고, 마리아가 천사의 말에 순종한 것에 감사했어요. 마리아는 사실 그때 예수님을 잉태하고 계셨어요.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얼마간 묵으면서 엘리사벳을 도와주었어요.



이스라엘에 사는 마가렛의 경험담이에요

나는 어렸을 때 자주 동네 공원에 가서 놀았어요. 그런데 몇몇 아이들이 나를 짓궂게 놀렸어요. 그날 한 아이가 특히 심하게 놀렸어요.



나는 너무 화가 나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그 애들하고는 다시는 안 놀거야!”라고 엄마에게 말했더니, 엄마는 “눈물을 닦고 밖으로 가서 그 애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렴.”하고 답하셨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그 아이들을 부르러 갔어요.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엄마는 막 구워낸 이랍 빵을 모두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 빵을 가지고 돌아온 아이들을 보신 부모님들은 놀라워하시며 우리를 만나 보고 싶어 하셨어요.